

분과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사회 : 후지모토 타쿠미(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 루쉰(魯迅)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중국어 어기 부사 '可'의 한국어 번역 양상 연구

하오디(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루쉰(魯迅)의 문학 작품에 쓰이는 어기 부사 '可'의 일반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를 해석하고 한국어 번역가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화자의 주관적 입장, 관점, 그리고 태도나 감정은 어기 부사를 통해 표현되고 전달된다. (조윤주, 2021) 어기 부사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교육 면에서나 사용 면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어를 더욱 중국어답게 구사하려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요소이다. 史金生(2003)은 “어기 부사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명제 밖에서 사용되며 대인 관계 및 텍스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이다.”라고 하였다. 어기 부사는 주로 사변, 긍정, 과장, 강조, 완곡어법 등 화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 그리고 태도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문장에 대한 독자나 청자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기능도 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어 어기 부사 '可'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可'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대중국어에서 '可'가 조동사, 연결사, 그리고 어기 부사 등 다양한 품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이나 일상 회화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기 부사로서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문장 유형에서 쓰일 수 있다. 어기 부사 '可'가 나오는 다양한 중국어 텍스트를 고찰하다 보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기 부사 '可'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와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조, 비교, 설명 등 화용적 기능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기 조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화용적 기능과 의미를 간단하게 살려서 해석하거나, 목표 언어 텍스트에서 직역, 혹은 생략하면 아주 어색한 한국어 문장이 될 수도 있다.

翁义明, 王金平(2019)는 문학 속 문장에 나오는 주관적인 '어기'에 대한 연구는 독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이미지, 인간관계, 그리고 인물의 심리 묘사 등을 평가 및 감상할 때 가치가 있다고 했다. 현대 중국어의 어기 부사가 지니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목표 언어 텍스트에서 충분히 재현되는가는 문학 번역 결과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기준이다.

〈루쉰 전집〉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먼저 루쉰의 문장에서 사용된 언어가 매우 간결하고 정확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张雅琪(2017)는 문장에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루쉰의 기준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문장에 나오는 언어는 일반적인 표현 습관과 어우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소설 속 인물의 정체성과 심리 활동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루쉰은 문장에서 길고 복잡한 묘사성 글과 과시하는 내용 등을 매우 반대하였다. 따라서 루쉰의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간결한 언어 스타일은 문장의 심오하고 함축적인 의미와 극명하게 대조되어 독자들이 당시 사회의 잔혹함과 냉담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史锡尧(1984)도 루쉰이 부사에 대한 선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었으며, 루쉰의 모든 작품에서 부사를 사용하여 문장에 새로운 표현 효과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루쉰의 작품 속 문장 표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논의 및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어기 부사에 대한 연구 중 한국에서는 조운주(2021)의 연구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조운주(2021)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통시적 관점에서의 의미 변화를 토대로 어기 부사의 문법화에 대해 연구했고 공시적 관점에서 문장 속 어기 부사의 화용적, 통사적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苏俊波, 余乐(2018), 张秀松(2016)는 중국어 어기 부사 '可'의 어휘적 핵심 의미 변화 역사를 연구하였다. 대표적인 '可'의 화용론적 선행 연구에는 盛继艳(2005), 韩在均(2007), 章蓉(2017) 등이 있다. 章蓉(2017)은 국제교육학적으로 현대중국어의 강조 표기인 '可'와 '是'의 어법적 기능과 교육 방법에 대해 깊게 연구하였다. 盛继艳(2005)과 张秀松(2016)은 코퍼스를 기반으로 현대중국어 어기 부사 '可'의 화용론적 기능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韩在均(2007)은 한국인 학생에게 중국어 어기 부사 '可'에 대해 강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可'의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韩在均(2007)은 이렇게 풍부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는 어기 부사가 중국어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어기 부사가 가지는 의미를 한국어 문장에서 아주 쉽게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할 때 문장의 맥락과 실제 대화의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温锁林(2009)은 어기 부사 '并'의 어법과 의미를 자세하게 논의하면서 '并'의 사용 배경과 사용 조건을 고찰하여 문장의 의미를 분석할 때 어기와 말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한국 국내 연구의 문제점은 중국어 부사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정도 부사나 시간 부사에 대한 연구만 많이 진행되었고, 어기 부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번역학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어 언어학 연구 또는 국제 중국어 교육 연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신지연(2019)과 任利娜(2020)는 번역학적 관점으로 중국어 부사의 영어 번역 처리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주로 품사 변환 방식을 제안했지만 어기 부사의 번역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다. 최근에 翁义明, 万光荣(2019)은 언어의 주관성에 근거하여 루쉰 소설 번역판본에 나오는 어기 부사의 영어 번역 양상에 대한 데이터 통계 및 분석을 수행하고, 어기 부사의 주관성을 영어로 번역할 때 택하는 번역 전략을 조사하였다. 두 가지 번역 판본을 고찰하여 각 번역가의 번역 특성, 번역 원칙 및 번역 전략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분석 대상은 果然, 本来, 倒, 反而, 简直, 竟, 居然, 明明, 偏, 原来 등 총 10개의 어기 부사며, '可'는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분석한 예문이 매우 단순하고 상징적이다. 문학 작품에서 예문을 가져와서 분석했지만, 연구자들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만 찾았을 뿐, 맥락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하는 복잡하고 모호한 예문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루쉰의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可是'는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로 쓰이는 대신 맥락과 문장의 내용에 따라 어기 부사로 쓰인 경우가 많다. 또한 분석한 예문도 단문 위주이다. 어기 부사 '可'의 화용적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盛继艳(2005)은 '선행 문장 패턴'과 '대화 문장 패턴', 두 가지 예문의 전제적 정보 보완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복잡한 예문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중국어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인 번역자가 ST(source text)에서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인 번역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과물을 통해서 한국인 번역자의 인지 과정이나 한국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문자적 특징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영향력 있는 번역자 역시 번역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인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이

중국인 예비 번역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위에서 제기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번역학적 관점에서 본 논문 연구의 중점을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두었다. 1. 중국어 문학 작품 원문에 있는 어기 부사 '可'가 번역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2. 각 텍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화용론적인 의미가 번역문에서 어떻게 결손되었는가. 3.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에서는 한국인 번역가가 어떠한 표현 방법을 취하여 결손된 화용론적 의미를 보완하였는가.

상기한 3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BCC 베이징어언대학교 현대중국어 코퍼스에서 루쉰의 모든 작품 중 부사 '可'가 쓰이는 문장을 찾아 정리하였다. 코퍼스 데이터를 정리해 보면 <루쉰 전집> 중 부사 '可'가 나오는 작품은 <외침>(〈呐喊〉), <방황>(〈彷徨〉), <들풀>(〈野草〉), <아침 꽃 저녁에 줍다>(〈朝花夕拾〉), <이이집>(〈而已集〉), <이심집>(〈二心集〉), <무덤>(〈坟〉) 등이다. 그다음에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정리된 어기 부사 '可'의 기본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를 바탕으로 각 문장에 나오는 어기 부사의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노신문화회 번역판본과 루쉰 전집 번역위원회(공상철, 서광덕, 한병곤, 김하림, 유세종) 등 두 가지 번역 판본에 나오는 번역 양상을 고찰하였고 어기 부사의 번역 처리 방법을 유형대로 정리하였다. 다만 노신문화회 번역판본에는 몇 가지 작품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주로 루쉰 전집 번역위원회의 번역판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중국어 어기 부사의 번역 양상 분석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 문장 유형별로 나타나는 중국어 어기 부사 '可'의 기본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 위와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루쉰(鲁迅) 작품에서 중국어 어기 부사 '可'가 쓰이는 문장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참고할 만한 번역 전략을 정리하였다.

## 2. 중국어 어기부사 可의 의미 및 화용적 기능

어기 부사는 부사(副詞)의 하위 분류 중 하나이지만, 문법적 특징과 의미에서는 일반 부사와 구별된다. 王力(1943:160)은 '어기 부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어기 부사를 의아, 불만, 경설(輕說) 등 8가지로 요약하며 어기 부사가 다양한 주관적 감정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现代韩语八百词>, <现代汉语虚词例释>, 그리고 <现代汉语词典>와 같은 서적을 참고하여 어기 부사 '可'의 기본적인 의미와 용법을 정리하였다.

[표1] '可'의 기본적인 의미와 용법

문장 유형	기본적 의미	표현 형식	예문
평서문	真的, 实在, 确实	1. 可+动词结构	我可知道他为什么这么说。
		2. 可+(不)+形容词/动词	他可不是个好人。
감탄문	终于, 总算, 好不容易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일이 현실이 됨	1. 可+动词/动词结构+语气助词	你可写完作业啦!
	特别, 尤其 어기 부사 뒤에 오는 형용사나 동사를 강조하고 과장하는 의미가 있음	2. 可+形容词/心理动词+语气助词	他可喜欢吃韩国菜了! 这道菜可辣了!

	真的, 实在, 确实	3. 可+真/挺+形容词/有/是/动词+语气助词。	今天的天气可真冷啊!
명령문	千万, 一定 이 분위기 부사는 ‘要, 别, 得’과 함께 사용되어 명령형 분위기를 표현함	可+要/得/别/不能+动词	一会儿上课的时候, 你可别睡着了。
반문문(反問句)	究竟, 到底 어기를 강조함	可+特殊疑問句	这么大的地方, 可上哪儿去找他呀?
	진술한 사실을 강조함		

杨惠芬(1993), 盛继燕(2005), 韩在均(2007), 张秀松(2016)은 부사 ‘可’의 화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평서문 화용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2] 평서문 ‘可’의 화용적 기능

화용적 기능	화용적 의미	표현 형식	예문
다양한 내용 비교하기	화자 또는 행동 수행자는 칭찬, 경멸, 불만족 등의 감정을 표현함	1. 可+比/没+(比较对象)+这么/那么+形容词/动词	我可没有你那么幸福, 我昨天才和老公离婚。
	주어를 함축된 대상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해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음	2. 可+心理动词(想知道, 愿意, 认为, 以为)+动词结构	没想到这次他可愿意去出差了。
변명/설명하기	화자는 이미 발생한 행동, 의견, 사건을 부정, 논박, 변호 및 설명할 수 있음	1. 可+(不是)+动词结构/名词结构	你别给我打电话了。我可不是喜欢你才联系你的。
		2. 可+动词结构(已然)	我可没说过这种话。
사실 강조하기	기존 상황을 강조함	可+是+谓语部分	这可是我专门从日本买来的礼物。
태도 강조하기	일어날 일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강조함		我急忙说：“那可不行，这十天我住哪儿啊？”
	예기치 않음을 나타냄	可+把+述补结构	可把我累坏了。
상대방의 관심을 끌거나 상기시키기	일반적으로 전후 문장에서 가정된 조건이 있음. 가정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일을 강조함	第一, 三人称+可+动词结构+语气助词	你玩游戏吧, 我可走了!
	듣는 사람에게 상기시키거나 경고할 수 있음	없음	东西我可交给你了, 要是出了什么问题, 别再找我了。
결과 강조하기	원하는 결과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표시함	없음	听音乐机事小, 影响到同学休息可不好。
	화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옴		这一问可把我给问住了。
	기대되는 결과를 드디어 얻은 화자의 기쁨을 표현함		等了将近三个小时, 你可来了。

### 3. 번역 양상 분석

#### 3.1. 생략 번역

모든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번역 과정에서 어기 부사 ‘可’를 생략한 예시가 총 23개 있었다. 그중에서 ‘可+정도부사+위어(형용사절)’ 형식이 나왔을 경우, 사물의 성질과 상태가 예상보다 심하다고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는 어기 부사 ‘可’의 의미를 생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주어+可+위어’ 형식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강조하는 예문 중에서도 ‘可’의 의미를 생략하여 번역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외에도, 원문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비교’라는 화용적 기능을 살리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예문에서 한국인 번역가들은 원문의 문자적 의미, 즉 기본적 의미도 살리지 않았고 원문이 가지는 화용적 의미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처리 방법도 취하지 않았다.

1. 何晏的名声很大，位置也很高，他喜欢研究《老子》和《易经》。至于他是怎样的一個人呢？那真相现在可很难知道，很难调查。

【文章标题:而已集·魏晋风度及文章与药及酒之关系<위진 풍도. 문장과 약, 술의 관계 作者:鲁迅】

TT1: 하안은 명성도 매우 높았고 지위도 매우 높았으며, <노자>와 <역경>을 연구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 진상을 현재로서는 알기 매우 어렵고 조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TT2: 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의 진상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내기도 조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원문에서는 ‘可+很难+知道’를 사용했다. 전후 내용을 보면, 루쉰은 강연 앞부분에서 조조와 공융을 자세하게 소개했고, 이 부분에서 하안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진상을 알게 될 길이 없다며 그 어려움과 아쉬움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어기 부사 ‘可’를 통해 화자 루쉰의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두 가지 번역판본에서는 모두 이를 살리지 않았다.

2. 中国文学史，研究起来，[可]真不容易，研究古的，恨材料太少，研究今的，材料又太多，所以到现在，中国较完全的文学史尚未出现。

【文章标题:而已集·魏晋风度及文章与药及酒之关系<위진 풍도. 문장과 약, 술의 관계 作者:鲁迅】

TT1: 중국 문학사 연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TT2: 중국 문학사를 연구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1번 예문과 비슷한 ‘可+정도부사 真+위어(형용사절)’ 문장 형식이다. 여기에서는 ‘可’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두 가지 번역문에서 모두 정보부사를 ‘정말’로 번역하고 어기부사를 생략하였다.

3. 客——（西顾，仿佛微笑，）不错。那些地方有许多许多野百合，野蔷薇，我也常常去玩过，去看过的。但是，那是坟。（向老翁，）老丈，走完了那坟地之后呢？

翁——走完之后？那我[可]不知道。我没有走过。

客——不知道？！

【文章标题:野草·过客 作者:鲁迅】

TT1: 길손: (서쪽을 바라보며, 어슴푸레 미소 짓는다) 그래 거기에는 들백합과 들장미 꽃이 많지. 나도 놀러 가서 본 적이 있단다. 그렇지만 그건, 무덤이야. (늙은이에게)영감님, 무덤 있는 데를 지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늙은이: 무덤 너머? 그건 나도 모르오. 가 본 적이 없으니까.

길손: 모르신다구요?

TT2: 무덤을 지난 다음이라? 그건 나도 모르오, 가보질 못했으니까.

3번 예문은 평서문 형식으로 변명과 반박의 의미를 내포한다. 앞뒤 맥락을 보면 여기에서 노인이 객관적으로 자신도 길손이 물어본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변명과 설명의 의도를 표현한다. 노인의 입장은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길손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그 일에 대해 아예 모른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기 조사를 쓰지 않으면, ‘那我不知道’는 변명과 설명의 의도가 약해진다.

4. 忽然间, 一个最聪明的双喜大悟似的提议了, 他说, “大船? 八叔的航船不是回来了么?”十几个别的少年也大悟, 立刻撺掇起来, 说可以坐了这航船和我一同去。我高兴了。然而外祖母又怕都是孩子, 不可靠; 母亲又说是若叫大人一同去, 他们白天全有工作, 要他熬夜, 是不合情理的。在这迟疑之中, 双喜[可]又看出底细来了, 便又大声的说道, “我写包票! 船又大; 迅哥儿向来不乱跑; 我们又都是识水性的!”

【文章标题: 呐喊 社戏 作者: 鲁迅】

TT1: 그런데 갑자기 그중 가장 똑똑한 쌍희가 뭔가를 생각해 낸 듯 제안을 하고 나섰다. “큰 배? 바아저씨 배가 벌써 돌아와 있잖아?” 열댓 명의 소년들도 생각이 났는지 맛장구를 치며 이 배에 나랑 같이 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기뻐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모두 아이들이라 마음이 안놓인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른이 따라간다면 모를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밤까지 고생시키는 건 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와중에 쌍희가 속사정을 알아채고는 크게 소리쳤다. “제가 책임질게요. 배도 크고요. 손이는 여태껏 함부로 나뉘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또 물에 대해선 잘 알거든요!”

TT2: 이때 갑자기 쌍희라는 충명한 아이가 생각나는 바가 있는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김새를 알아차린 쌍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기 부사를 통해 쌍희라는 친구가 아주 충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예문이다. 쌍희와 다른 아이들이 ‘나’를 데리고 놀고 싶어서 ‘나’의 엄마와 할머니에게 부탁하는 장면이다. 문장 앞에서 쌍희는 이미 무엇인가를 생각해 낸 듯 제안을 했으며 어머니에게 거절당했지만, 똑똑한 쌍희는 다들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법을 하나 더 찾았다. 화자는 여기에서 쌍희가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는 점을 표현하였는데, 번역문에서는 주인공의 이런 감정을 살리지 않았다.

5. 但是, 大约是一个马蚁, 在我的脊梁上爬着, 痒痒的。我一点也不能动, 已经没有除去他的能力了; 倘在平时, 只将身子一扭, 就能使他退避。而且, 大腿上又爬着一个哩! 你们是做什么的? 虫豸! ?

事情可更坏了: 嗡的一声, 就有一个青蝇停在我的颧骨上, 走了几步, 又一飞, 开口便舐我的鼻尖。我懊恼地想: 足下, 我不是什么伟人, 你无须到我身上来寻做论的材料……。

【文章标题: 野草 死后 作者: 鲁迅】

TT1: 아마 재미겠지. 개미 한 마리가 내 등줄기를 따라 가는 것이 간지럽다. 꼼작할 수 없는 나로서는 놈을 몰아낼 재간이 없다. 평상시였다면, 조금만 뒤척여도 달아났을 텐데, 그뿐인가. 허벅지로 또 한 놈이 기어오른다. 이놈들 도대체 뭐하는 거야? 버리지 놔들!

형편은 더욱 나빠졌다. 응 하는 소리와 함께 파리 한 마리가 내 관자놀이에 내려앉아 몇 발짝 기다가 날아

올랐고, 다시 내려와 코끝을 활았다.  
(TT2 수록되지 않음)

‘可’를 쓰지 않으면 ‘事情更坏了’는 단순히 ‘일이 더욱 나빠진다’라는 뜻이다. 원문에서는 여기 부사 ‘可’를 통해 ‘주인공의 주관적인 예측보다 더 심한 정도로, 원하지 않은 나쁜 일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화용적 의미를 살리지 않았으며 기본적 의미조차도 살리지 않았다.

### 3.2. 간접적인 번역

한국인 번역가들은 여기 부사가 나타내는 모든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간접적으로 문자적 보완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번역 양상을 고찰해 보면 보완 방법은 주로 ‘형용사로 변환’, ‘함축적 의미 명시’, ‘다시 쓰기’ 등이 있다.

6. 七子之中，特别的是孔融，他专喜和曹操捣乱。曹丕《典论》里有论孔融的，因此他也被拉进“建安七子”一块儿去。其实不对，很两样的。不过在当时，他的名声可非常之大。

【文章标题:而已集 魏晋风度及文章与药及酒之关系<위진 풍도. 문장과 약, 술의 관계 作者:鲁迅>】

TT1: 칠자 중에서 공융이 특별했으니, 그는 오로지 조조에게 말썽을 부리기 좋아했습니다. 조비의 <전론>에 공융을 논한 것이 있는데, 이 때문에 그도 ‘건안 칠자’의 한패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TT2: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공융의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형용사로 변환하는 방법이란 정도가 더 깊거나 강한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여기 부사가 가지는 의미를 명시하는 번역 방법이다. 6번 예시의 원문은 ‘공융의 명성이 높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 부사를 통해 ‘매우 높다’라는 뜻을 강조한다. 따라서 두 번역문에서는 모두 ‘높다’보다 강도가 더 높고 몹시 크거나 많다는 뜻을 지니는 형용사 ‘대단하다’를 사용하였다.

7. 孩——给你！（递给一片布，）裹上你的伤去。

客——多谢，（接取，）姑娘。这真是……。这真是极少有的好意。这能使我可以走更多的路。（就断砖坐下，要将布缠在踝上，）但是，不行！（竭力站起，）姑娘，还了你罢，还是裹不下。况且这太多的好意，我没法感激。

翁——你不要这么感激，这于你没有好处。

客——是的，这于我没有好处。但在我，这布施是最上的东西了。你看，我全身上可有这样的。

【文章标题:野草 过客 作者:鲁迅】

TT1: 받으세요! (형짚 한 조각을 건네면서)이걸로 다친 데를 싸매세요.

길손: 고마워요.(건네받으면서)아가씨 참으로…… 이렇게 고마울데가 덕분에 훨씬 많이 걸을 수 있을 거요. (깨진 벽돌 위에 앉자 복사뼈를 싸매려다 말고) 그렇지만. 아니야! (힘을 다해 일어서면서) 아가씨. 돌려주리다. 너무 작아서 싸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호의를, 보답할 길도 없고,

늙은이: 그렇게 고마워하지 마시오. 그건 댁에게도 좋지 않소.

길손: 그렇습니다. 제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기는 이게 최상의 보시입니다 보세요. 제가 온몸이 이렇듯.

늙은이: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오.



TT2: ……보십시오. 제 몸에 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함축적인 의미를 명시하는 방법이란 여기 부사가 쓰이는 문장의 형식을 최대한 살려서 함축적인 의미를 다른 언어적 방법으로 명시하는 번역 방법이다. 7번 예시에서 길손은 평서문으로 보이는 반어문을 사용하였으며 온몸으로 여자아이에게 보답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나왔던 ‘문장 뒤에 반드시 특수 의문사의 반문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규칙이 이 문장에서는 준수되지 않았다. 반어문에 쓰이는 여기 조사 ‘可’는 here를 강조하며 ‘도대체, 필경’의 뜻으로 쓰인다. TT1은 원문과 같이 평서문 형식으로 ‘제가 온몸이 이렇듯’이라고 번역하였다. ‘제가 온몸이 이렇듯’은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 원문의 함축된 의미를 살렸다.

8. “谁的?不就是夏四奶奶的儿子么?那个小家伙!”康大叔见众人都耸起耳朵听他,便格外高兴,横肉块块饱绽,越发大声说,“这小东西不要命,不要就是了。我[可是]这一回一点没有得到好处;连剥下来的衣服,都给管牢的红眼睛阿义拿去了。

【文章标题:呐喊·药·약 作者:鲁迅】

TT1: “누구겠어? 샤씨 집안 넷째 집 놈이지. 고 맹랑한 놈 말야!”

사내는 모두가 귀를 세우고 있는걸 보고 한층 신이 났다. 그리하여 뒤룩거리는 낫살을 팽팽히 조이며 언성을 한층 더 돋우었다. “그놈이야 살기 싫다니 돼지면 그만이지. 근데 난 뭐야. 이번에 국물 한 방울도 못 먹었으니 말야. 하다못해 벗겨 낸 그 놈 옷까지 토끼눈갈 간수 아이가 몽땅 가져가 버렸다니까….

TT2: “그 녀석은 목숨이 아까운 줄도 몰라! 그깟 놈 죽겠으면 죽으라지. 그런데 이번에 난 쟁겨먹을 게 없었는 걸……간신히 벗겨낸 옷도……”

다시 쓰기 방법이란 여기 부사가 쓰인 문장의 문장 형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언어적 표현 방식으로 원문이 가지는 의미를 살리는 번역 방법이다. 8번 예문에서 화자는 이번에 이득을 하나도 못 얻었다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여기 부사 ‘可’를 통해 이득을 못 얻은 것이 화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두 가지 번역문은 모두 원문의 형식에 벗어나서 ‘국물 한 방울도 못 먹는다’와 ‘쟁겨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으로 여기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살렸다.

### 3.3. 직접적인 명시 번역

중국어의 여기 부사와 같이, 기본적 의미를 지니는 한국어 표현이 존재하며 한국어의 특정 맥락에서 동일한 화용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적 표현도 존재한다. 따라서 번역판본에서 중국어 여기 부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직접 찾아 사용하여 원문의 의미를 명시하는 번역 방법을 취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번역판본에서 많이 사용한 직접적인 명시 번역 방법은 주로 ‘부사 추가’, ‘어미, 조사 추가’, 그리고 ‘보조동사 추가’ 등 세 가지가 있다.

9. 我还记得,“国共合作”时代,通信和演说,称赞苏联,是极时髦的,现在可不同了,报章所载,则电杆上写字和“××党”,捕房正在捉得非常起劲,那么,为将自己的论敌指为“拥护苏联”或“××党”,自然也就髦得合时,或者或许会得到主子的“一点恩惠”了。

【文章标题:二心集“丧家的”“资本家的乏走狗”·‘집 잃은’자본가의 힘없는 주구’ 作者:鲁迅】

TT1: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니와, ‘국공합작’ 시절에는 통신과 연설에서 소련을 칭찬하는 것이 대단히 유행하였는데 지금은 자못 달라졌으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봇대에 글을 쓰는 자나 ‘공산당’을 붙잡느라 경찰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논적을 ‘소련을 옹호한다’거나 ‘xx당’으로 손가락질하는 것도 물론

시류에 맞는 일이며, 혹여 주인의 ‘약간의 은혜’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TT2: ‘국공합작’ 시대에는 통산과 연설에서 소련을 칭찬하는 것이 자못 유행이었다고 나는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可’를 쓰지 않은 ‘现在不同了’는 단순히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뜻이다. 어기 부사 ‘可’를 사용함으로써 예전과 비교하여 지금의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번역문에서는 부사 ‘자못’을 사용해서 ‘생각보다 매우’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

10. 从去年起，仿佛听得有人说我是仇猫的。那根据自然是在我的那一篇《兔和猫》；这是自画招供，当然无话[可]说，——但倒也毫不介意。一到今年，我[可]很有点担心了。我是常不免于弄弄笔墨的，写了下来，印了出去，对于有些人似乎总是搔着痒处的时候少，碰着痛处的时候多。

【文章标题:朝花夕拾 狗 猫 鼠 作者:鲁迅】

TT1. 지난해부터 내가 고양이를 미워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은 듯하다. 그 근거는 물론 나의〈토끼와 고양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자화상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으니 구태여 변명할 것도 없고, —또한 그렇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올해가 되어 나는 도리어 약간 근심이 생겼다. 나는 항상 필묵 다루기를 면치 못하는 처지인지라 무엇을 좀 써서 찍어 내기만 하면, 어떤 이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준 적은 늘상 적고 아픈데를 건드릴 때가 더 많았다

TT2. 그런데 금년에 나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다…….

10번 예문은 9번과 같이 부사 추가 방법을 취해서 번역하였다. 원문에서 어기 부사 ‘可’는 ‘내가 고양이를 증오한다는 소문을 작년부터 들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정치적 사유로 인해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신경 쓰고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TT1은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 ‘도리어’를 사용해서 중국어 원문의 의미를 살렸다.

11. :我只记得那“起讲”的开头是：——“徐子以告夷子曰：吾闻用夏变夷者，未闻变于夷者也。今也不然：鸩舌之音，闻其声，皆雅言也……。”以后可忘却了，大概也和现今的国粹保存大家的议论差不多。

【文章标题:朝花夕拾 琐记 사소한 기록 作者:鲁迅】

TT1. 나는 지금 ‘기강’의 첫머리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서자가 이자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하나라가 오랑캐 들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으되 오랑캐가 변화시켰다는 소리는 듣기 못하였도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라, 백로의 지저귐과 같은 그 소리는 들으매 모두 고상한 말이라,…….그 다음은 다 잊어버렸는데 대체로 오늘의 국수 보존론자들의 논조와 비슷한 것이었다.

TT2. ……그 다음은 다 잊어버렸는데

두 번역문에서 모두 보조동사 ‘-어 버리다’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보조동사 ‘-어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으며,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여기에서는 어기 부사를 통해 ‘주인공이 예전에는 노력해서 잘 외웠는데 이제는 몇 절만 기억하고 있고 뒤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게 되었음’을 표현한다. 즉 ‘주인공이 해당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어기 부사가 없는 문장 ‘以后忘却了’는 단순히 주인공이 이제 그 내용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며 아쉬움

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12. 我[可]不怕, 仍旧走我的路。前面一伙小孩子, 也在那里议论我; 眼色也同赵贵翁一样, 脸色也铁青。我想我同小孩子有什么仇, 他也这样。忍不住大声说, “你告诉我!” 他们[可]就跑了。

【文章标题: 呐喊·狂人日记 作者: 鲁迅】

TT1: 그러나 나는 꺾끗이 가던 길을 갔다. ……“뭐라 말을 해봐!” 너석들은 줄행랑을 치고 말았다.

TT2: 그래도 나는 겁내지 않고 태연히 걸어갔다. …… 저 너석들이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다고 저럴까? 나는 그만 잠을 수 없어”왜들 이래?” 하고 꺾 소리를 질렀더니 아이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可+就……’도 루쉰 작품에서 많이 쓰인 표현이다. ‘就’ 뒤에는 항상 화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 번역문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 한국인 번역가들은 모두 어미 ‘-고 말다’로 번역하여 원문에서 어기 부사가 지니는 의미를 살려서 명시하였다.

‘-고 말다’는 ‘어떤 일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거나 어떤 일을 아주 힘들게 이루어냄’을 나타낸다. 이는 중국어 ‘可+就+결과’가 나타내는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4. 의문문 직접 전환

두 가지 번역판본에서 의문 어기를 가진 어기 부사‘可’가 나오는 문장들은 모두 직접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可’가 의문 어기를 나타낼 때의 문법 기능은 의문을 나타내는 ‘是否’와 같다.

13. 这一场“龙虎斗”似乎并无胜败, 也不知道看的人[可]满足, 都没有发什么议论, 而阿Q却仍然没有人来叫他做短工。

【文章标题: 阿Q正传 作者: 鲁迅】

TT1: 한바탕의 “용호상박”은 무승부처럼 보였다. 구경꾼들이 만족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다.

TT2: 구경꾼들 가운데에서 누구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보니 그들이 만족을 느꼈는지 어쨌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TT1는 질문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인 ‘-지’를 사용하였다. 원문에서 어기 부사 ‘可’는 ‘구경꾼들이 만족했는지’를 의미하는 의문 어기를 표현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도 존재한다.

14. 六一公公看见我, 便停了楫, 笑道, “请客? ——这是应该的。”于是对我说, “迅哥儿, 昨天的戏可好么?” 我点一点头, 说道, “好。”“豆可中吃呢?” 我又点一点头, 说道, “很好。”

【文章标题: 社戏 作者: 鲁迅】

TT1: 류이 아저씨는 나를 보자 노질을 멈추고는 웃으며 말했다. “손님을 접대했다고? 그럼 그래야 하고말고” 그리고 는 내게 말했다. “신 도령, 어제 연극은 재미있었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재미있어요.” “콩은 먹을 만하던가?” 나는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주 맛있었어요.”

TT2: “도련님, 어젯밤 구경이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콩이 맛있습니까?” “맛있었고 맵고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또 고개를 끄덕였다…….

루신의 작품 중 인물 간 대화 중에는 ‘可+형용사/동사+疑问语气助词’么/呢/?’와 같은 의문문 형식도 있다. 이러한 의문문에서는 의문 어기와 ‘可’가 동시에 나타나므로 문장에서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 기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화자가 알지 못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20번 예문에서 류이 아저씨가 말하는 ‘昨天的戏可好吗?’를 보면, 화자의 주관적인 기대는 ‘연극이 좋다’라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문을 사용하여 물었다. 여기 부사 ‘可’를 제거하면 연극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대한 화자의 관심 정도가 약해진다. 뒤에 나오는 ‘豆可中吃呢?’도 마찬가지이다. 두 가지 번역문은 모두 일반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다만 TT1은 보조 형용사 ‘만하다’를 써서 ‘콩은 먹을 만하던가?’로 번역했다. TT2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 3.5. 전환적 접속사로 번역

루신의 작품에서는 ‘可是’가 여기 부사로 자주 사용된다. 이때 ‘可是’는 원래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可’의 부사적 용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결과의 출현을 강조하거나 강조의 정도를 심화시키며, 맥락에 따라 대비를 강조하는 화용적 기능도 갖는다. 아쉽게도 이러한 여기 부사는 번역 텍스트에서 대부분 접속사로 직접 번역되었다.

15. 自此以后，又长久没有看见孔乙己。到了年关，掌柜取下粉板说，“孔乙己还欠十九个钱呢！”到第二年的端午，又说“孔乙己还欠十九个钱呢！”到中秋可是没有说，再到年关也没有看见他。我到现在终于没有见——大约孔乙己的确死了。

【文章标题:孔乙己 作者:鲁迅】

TT1: 그 뒤로 또 오랫동안 콩이지를 보지 못했다. 연말이 되자 주인은 칠판을 떼 내리며 말했다. “콩이지는 아직도 외상이 열아홉 푼 남았구만!” 그 다음 해 단옷날이 되어서도 또 그랬다. “콩이지는 아직도 외상이 열아홉 푼 남았구만!” 그러나 올 추석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연말이 왔어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아마 죽었으리라.

TT2: 그러나 그 해 추석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설날 그믐이 되었으나 콩을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 4. 결론

한국어 번역 양상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인 번역가들이 취하는 번역 방법의 공통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원문에 있는 여기 부사가 나타내는 모든 의미, 즉 기본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를 누락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중국인 번역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여기 부사가 문장 전후 내용에 대한 이해와 작품 속 캐릭터의 조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살려서 번역할 필요는 없다. 특히 서툴게 번역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둘째, 언어 형식은 같지만 맥락에 따라 표현되는 의미는 고정되지 않았다. 특히 루신과 같은 작가의 경우, 언어 표현 면에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분석할 때 사전에 정의된 의미에 따라서만 분석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

셋째, 실제 중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문에 쓰인 어기 부사가 가진 의미를 도출하고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에서 합리적이고 한국인의 발화 습관에 부합하는 문장을 잘 만들어야 한다.

또한 화용론적 차원에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번역 전략이 한 가지 정답으로 귀결되면 안 되며 번역자들이 맹목적으로 이에 따라 번역해서는 안 된다. 언어나 문자 차원에서 나타난 번역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 중에 적절한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대상과 사례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우선 루쉰 전집이 문화적 가치 및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유명한 중국 문학 작품의 번역판본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서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화문에서 어기 부사를 통해 크라이스 대화 이론을 위반함으로써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을 루쉰 전집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보완해서 연구하길 바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가 중한 번역 실전 및 교습에 도움이 되고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체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北京语言学院语言教学研究所编著(1986), 『现代汉语频率词典』,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黄伯荣·廖序东(2006),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 吕叔湘(2017),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2016), 『现代汉语词典』第7版, 商务印书馆.
- 김혜영(2019),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논문.
- 신지연(2019), 「한중번역에 나타나는 부사어 번역유형 고찰-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중역본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 2019, vol., no.50, pp. 293-316
- 조운주(2021), 「중국어 진술.강조성 어기 부사의 의미 유형 변화 분석」 *동국대학교 중국어학전공 박사 학위논문*
- 韩在均(2007), 「副词“可”的语用功能分析」, *中国言语研究*; 第25辑
- 侯学超(1998), 『现代汉语虚词词典』, 北京:北京大学出版社
- 南黎明 (2022) 副“可”字句的特征究, *한중인문학연구*, 74, 237-253
- 盛继艳(2005), 「语气副词“可”的语义分析」, 《广西社会科学》, 2005, NO.6
- 史金生(2003), 「语气副词的范围、类别和共现顺序」, 『中国语文』第1集, pp.17-31.
- 史锡尧(1984), 「鲁迅对副词的选用」 [J] . *语言教学与研究* ( 1 ) : 71 - 82 .
- 苏俊波·余乐(2018), 「语气副词“可”的核心语义」
- 温锁林(2009), 「语气副词“并”的语法意义」
- 文红(2012), 「汉语口语习用语的语义构成及其韩译法」
- 翁义明 万光荣(2019), 「鲁迅小说语气副词主观性英译的语料库考察-杨宪益译本和莱尔译本的对比视角」; 《广东外语外贸大学学报》 Vol. 30, No.3
- 杨惠芬(1993), 「副词“可”的语义及用法」, 《世界汉语教学》, No.3
- 张秀松(2016), 「语气副词“可”的语法意义的生成研究」· 《江西师范大学学报》 Vol. 42, No.4
- 章蓉(2017), 「现代汉语强调标记词“可”和“是”的语法功能及其教学法考」

## 〈토론〉 “루쉰(魯迅)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중국어 어기 부사 ‘可’의 한국어 번역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JIN HONGLIAN(중국 광서사범대학교)

중국어 어기부사 ‘可’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로부터 문법화의 현상을 일으키면서 어기부사로 쓰이고 있다. 어기부사로 쓰이는 ‘可’는 기타 조동사와의 결합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신’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장유형의 환경 하에 어기부사 ‘可’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루쉰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중국어 어기부사 ‘可’가 쓰인 문장들을 선정하여 기본적인 의미와 화용론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저자는 논문에서 루쉰의 문학작품을 선정한 이유를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해 그 이유를 밝히면서 루쉰 문학작품의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 스타일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잘 표현한다고 했다. 또 문화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문학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인 번역자와 한국인 번역자가 그 인지 과정이나 한국문화를 반영하는 문자적 특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중국인 예비 번역자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번역학적관점에서 어기부사 ‘可’가 번역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화용론적 의미가 번역문에서 어떻게 결손되었는가, 한국인 번역가가 어떠한 표현방법으로 결손된 화용론적 의미를 보완하였는가 하는 등 3 가지 문제를 살펴 보았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우선 세 사전을 통하여 사전적인 의미를 정리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화용론적인 의미도 정리했다. 또 이상의 의미적인 고찰을 중점으로 생략 번역, 간접적인 번역, 직접적인 명시 번역, 의문문 직접 전환, 전환적 접속사로 번역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학적 관점에서 어휘적의미와 화용론적 의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분석하면서 공통된 특징을 도출해 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어기부사 ‘可’가 번역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띄고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 제기하는 바이다.

1)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에서 왜 한국에서의 연구성과만 언급했는가? 중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살펴 보면 어기부사 ‘可’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양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내용면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있는 논문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2) 이 논문에서 사례를 분석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번역이론에 근거했는지? 서론 부분에서는 번역학적 관점이라고 했고, 결론 부분에서는 대화 이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크라이스의 대화 이론으로 분석을 했는지?

3) 제2장에서의 사전적 의미와 화용론적 의미를 정리한 내용을 사례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현하고, 어떻게 인용했는지?

4) 사례분석에서 생략 번역, 간접적인 번역, 직접적인 명시 번역, 의문문 직접 전환, 전환적 접속사로 번역 등 5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한 근거는 무엇인가?

5) 결론에서 어기부사 ‘可’의 함축적의미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는데 저자가 보기에 함축적의미란 무엇인가? 제2장에 함축적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6) 제목에서는 번역양상 연구라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분류에 따른 번역 방법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양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의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3.1에서만 언급) 저자가 생각하기에 양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논문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이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가?



## 한중 현재시제의 인지번역학적 탐구

조문결(한국외국어대학교)

### 1. 들머리

본 논문은 Langacker의 인식적 모형이론을 통해 현재시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인지번역학적 관점에서 한중 현재시제의 번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시제는 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형식은 언어마다 서로 다르다. 어떤 현재시제 형태는 하나의 한정 동사 형태로 구성된 형태론적 범주<sup>1)</sup>에 속하지만 어떤 현재시제 형태는 한정적인 조동사 형태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한정적 동사 형태의 다발<sup>2)</sup>이다(김동환, 2011: 916). SL과 TL의 현재시제 형태가 첫번째 형태이라면 번역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언어가 첫 형태이고 다른 언어가 두번째 형태라면 번역할 때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상응한 번역 전략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한중 시제와 상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일대일 대응을 찾고 있는 한경숙(2015, 2016),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의 측면에서 한중 현재시제를 논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동사 관형어라는 잘못된 표현을 대량으로 사용하면 전체적인 결과가 예측과 엇나간 李鉄根 외(2017), 조사 ‘来着’의 한중 번역을 논하고 있지만 시제, 상과 서법의 관계가 혼란스러워 합당한 번역 양상을 제시하지 못한 曾茂 외(2018) 등 연구들은 여전히 일대일 대응에 머물고 있거나 시제의 다양한 번역 양상을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본 논문은 한중 현재시제 연구에 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악일비 외(2019)와 같이 학교문법의 시제에만 집중하는 연구가 대다수이고 실제로 현재시제의 범위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를 표시하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현재시제의 범위가 과거나 미래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범위가 실제 한중, 중한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 그러한 번역 양상을 통해 공통된 법칙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삼고자 한다. 이에 근거해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Langacker의 인식적 모형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시제의 다양한 가능성을 해석하며 제 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현재시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어서 제4장에서는 인지번역학적 관점에서 출발해 한중 현재시제의 번역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위에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2. 인식적 모형이론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사람의 몸과 마음의 특성, 그리고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상관성 속에서 해명하려

1) 한국어가 이에 속한다.

2) 중국어가 이에 속한다.

는 언어관을 인지언어학이라고 한다(임지룡 외, 2014). 인지언어학에서 시제는 사건<sup>3)</sup>의 순서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반영한다. 이는 시간선(timeline)에 따른 구역에 기초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순서는 내재적으로 은유적이다. 또한 언어마다 이런 시간선의 방향과 구조화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시제는 참조점과 관련한 사건의 은유적 위치이다(임지룡 외, 2018: 846). 이러한 시간의 영역에서 사건이 “사물”이라는 은유적 이해에 의존한다. 하여 발화의 순간에 상대적으로 사건-사물을 위치시키기 위한 은유적 “공간”으로 시간선을 사용한다(임지룡 외, 2018: 848). Reichenbach(1947)의 9시제 체계<sup>4)</sup>는 처음으로 세 시점 간의 위치를 상황시, 발화시, 참조시라고 정의하면서 이 세 시점간의 위치 관계에 따라 시제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Reichenbach(1947)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Comrie(1985)과 Klein(1994)등과 같이 부동한 시점을 통해 시제를 정의하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문숙영, 2009). 하지만 이들 논의의 이면에는 현재시제가 원칙적으로 현재에 국한된 상황, 과거시제는 과거에 국한된 상황, 미래시제는 원칙적으로 미래에 국한된 상황에만 결합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초래된다. 하지만 실제로 시제는 사건 시간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음의 (1)-(3)처럼 많은 유형의 은유적 전이가 가능한데, 이 세 예시는 현재시제가 여러 유형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1) 아이들은 1시간 뒤에 저녁을 먹는다.(미래 사건/후방현재)
- (2) 해는 동쪽에서 뜬다. (세계의 내재적 본질)
- (3) 나는 어제 영화를 만났다. 영화는 요즘 어떠냐고 묻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가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러 간다.(역사적 현재/전방현재)

Jansen(2002)에 의하면 현재시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든 포함할 수 있는 ‘This-문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현재시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화자는 그러한 상황들을 구정보로 받아들인다(김동환, 2011: 924). 이에 근거하면 예시(1)은 가까운 미래로 발생할 예정인 사건-사물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었기에 미래 사건이긴 하지만 현재 화자에게 적용 가능하다. 즉 미래 사건이지만 현재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후방현재). 예시(2)는 세계의 내재적 본질에 대한 격언적 진술이기 때문에 똑같이 현재 화자에게 이용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예시(3)은 역사적 현재로 화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은유적으로 재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사물을 현재로 사상하는 장치이다(임지룡 외, 2018: 854-855). 즉 전방현재의 범주에 속한다. 게다가 여기서 예시(1)과 예시(2)는 현재 경험<sup>5)</sup>의 부분으로 해석되고 예시(3)은 현재 사상의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를 더 이론적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Langacker(1991:242)는 인식적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상적 인지모형(그림1-1)을 가져온다.

- 
- 3) 여기서의 사건은 동사로 기술되는 모든 종류의 상황을 가리킨다.
  - 4) Reichenbach는 9개의 시제를 제안했으며, 각각의 시제는 사건시time of the event(E)와 참조점point of reference(R)의 시간적 관계나 참조점point of reference(R)과 발화시time of speech(S)의 시간적 관계를 부호화하여 전방과거(E-R/R-S, 예 had left), 단순과거(E=R/R-S, 예 left), 후방과거(R-E/R-S, 예 would leave), 전방현재(E-R/S=R, 예 has left), 단순현재(E=R/S=R, 예 leaves), 후방현재(R-E/S=R, 예 will leave), 전방미래(E-R/S-R, 예 will have left), 단순미래(E=R/S-R, 예 will leave), 후방미래(R-E/S-R, 예 will be going to leave)로 분류한다(김동환, 2011: 917).
  - 5) 사물의 구성, 순서, 예정, 습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시제 형태는 미래 상황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김동환, 2011: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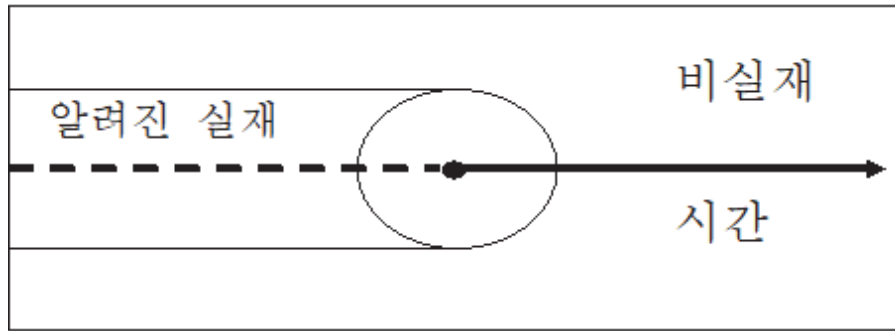


그림 1-1 인식적 모형(Langacker 1991)

이 모형은 크게 비실재와 알려진 실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의 실재는 개인의 개념적 체계에서 표상되는 지식과 관련 있는 의미를 가리킨다. 그림의 중앙을 지나가는 수평선은 시간을 나타내는데 실재가 전개되는 축으로 기술한다. 큰 원은 ‘현시점’으로 간주하는 직접적 실재를 나타내는데 이는 발화 사건이 발생하는 고정체<sup>6)</sup>를 말한다. 검정표시의 작은 원은 언어 사용자를 상징한다. 점선은 ‘지금까지’라는 시간을 나타내고 실선은 ‘지금 이후’라는 시간을 나타낸다. 실재에서 ‘지금’이 순간적이지만 발화 사건은 순간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언어적 목적을 위해 해석되는 ‘지금’은 중요한 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원 안의 시간 선의 부분으로 나타낸다(임지룡 외, 2008: 669).

이 모형을 통해 우리는 현재시제가 고정체 내의 시간을 지시하는 반면, 과거시제는 알려진 실재 내에 있지만 고정체 외부에 있는 시간 부분을 지시하고, 미래시제는 고정체를 넘어서는 비실재 안에 있는 시간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은 시간이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적 은유와 시간은 공간적 표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그것에 기생하고 있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실재와 비실재는 거리의 매개변인에 따라, 즉 그것이 고정체에 직접적인지(가까움) 또는 비직접적인지(멀)에 관해서 서로 다르다(임지룡 외, 2008: 669). Tyler&Evans(2001a)는 이를 인식적 거리(epistemic distance)<sup>7)</sup>라고 정의내린다. 예컨대, 단순현재는 고정체의 ‘현시점’을 지시하기에 직접적 실재이고 과거시제는 알려진 실재에 속하는 시간의 부분을 환기시키지만 고정체의 ‘현시점’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직접적 실재에 속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래시제는 인식적 거리 여부와 상관없이 비실재에 속하는 시간의 부분이기에 고정체 ‘현시점’과의 거리에 따라 또 직접적 비실재와 비직접적 비실재로 나눌 수 있다.

이 모형을 토대로 현재시제의 다양한 은유적 변이를 일일이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하려면 먼저 고정화 서술의 형태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다음 실재인지 비실재인지를 구분하고 나중에 직접적인지 비직접적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현재시제가 되려면 고정화 서술이어야 하는 동시에 직접적이고 실재한 사건이어야 한다. 현재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연상되는 사건-사물을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데 흔히 단순현재, 역사적 현재, 현재습관, 세계의 내재적 본질에 대한 격언적 진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4) 영희는 지금 밥을 먹는다.(단순현재)

(5) 나는 며칠 전에 영희를 만났다. 영희는 요즘 어떠냐고 묻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가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러 간다.(역사적 현재)

(6) 영희는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는다.(현재습관)

6) 각 발화 사건은 발화 장소와 시간, 발화 사건의 참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정체를 수반한다. 직시 범주인 시제는 과정을 발화 시간에 상대적으로 위치시킨다(임지룡 외, 2008: 665).

7) 시제는 시간 지시 기능 외에도 인식적 거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인식적 거리는 화자와 특정한 사태 사이의 은유적 ‘거리’에 의존한다. 즉 이것은 실현될 특정 상황의 있음직함에 관한 화자의 ‘입장’이나 판단을 말한다(임지룡 외, 2009: 422).

(7)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격언적 진술)

(7) 영화는 내일 부산으로 간다.(가까운 미래)

예시(4)는 단순현재로 한정절이기에 고정화되어 있고 ‘지금’이라는 단어가 ‘현시점’을 지시하고 있기에 고정체 그 자체이며 화자가 직접 경험한 실재 사건이기에 현재시제로 나타낼 수 있다. 예시(5)는 역사적 현재<sup>8)</sup>로 고정화 서술이다. 하지만 단순현재와 달리 과거의 사건이지만 화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실재를 화자에게 은유적으로 재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사물을 현재로 사상하고 있다. 이로써 화자가 그 당시의 ‘현시점’에 위치하고 직접적으로 사건-사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시제가 사용될 수 있다. 예시(6)은 현재습관<sup>9)</sup>으로 문장이 고정화 서술이다. 이는 습관적 사건을 부호화한 것으로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고 고정체와의 거리가 가깝기에 직접적 실재에 속한다. 하여 현재습관을 현재시제로 나타낼 수 있다. 예시(7)과 같은 격언적 진술<sup>10)</sup>은 세계의 내재적 본질이나 속담, 명언 등을 포함한다. 이는 지시성이 결여된 상황이지만 고정화 서술로 화자가 직접 경험한 실재이며 이 또한 고정체와의 인식적 거리가 매우 가깝기에 현재 화자에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시제로 표현한다. 예시(8)에서 ‘내일’이라는 어휘가 미래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발생할 예정인 사건-사물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고정화 서술이고 발생 예정이기에 화자가 꼭 경험할 수 있는 사건-사물이므로 실재에 속한다. 또한 고정체와의 인식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미래이긴 하지만 현재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담화 유형에서 현재시제를 선호한다. 보도문이나 해설적 현재가 그 예이다. 미래나 과거 사건에 현재시제를 사용하는 보도문에서나 상황시와 발화시가 일치한 해설적 현재에서는 현재형을 화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시하기 위해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적 현재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직접적인 것처럼 은유적으로 재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나 미래의 사건-사물을 현재로 사상하는 장치로 현재시제를 선택한다. 이는 직접적 실재에 적절하므로 현재시제 사용이 타당하다.

### 3. 한중 현재시제에 대한 고찰

시제(tense)는 사건-사물이 시간선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체계, 즉 ‘시간의 외적 양상’을 표시하는 것이고 상(aspect)은 어떤 종류의 사건-사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체계, 즉 ‘시간의 내적 양상’을 표시하는 통사범주로 인식된다. 이러한 시제와 상의 범주는 상호작용한다. 때문에 완료 형태는 시제 표지가 없다면 과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해석된다. 따라서 상이 직시 범주는 아니지만<sup>11)</sup>, 상 정보는 때때로 고정체에 관해 시간적 위치를 추론하도록 한다(김

8) 지금까지의 연구는 역사적 현재가 주로 두 가지 의도에 의해 현재시제가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화자가 ‘생생함’을 의도하기 위해 기사문이나 기행문에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적 현재 방식을 선택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생동감, 극적 효과, 묘사의 효과, 화자의 개입 배제 효과 등’을 노리고 역사적 현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다만 이야기 소단위를 넘어선 새로운 이야기 단위가 시작되는 화제 전환이나 장면 전환 부분에는 사용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문숙영, 2009: 204-205).

9) 습관이란 항상 유지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 순간에도 유지되는 것이므로 현재시제가 가장 적합한 시제형식이라고 여러 학자들은 주장해왔다.

10) 문숙영(2009)에 따르면 격언적 진술가 현재형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설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제가 선호되는 것은 현재시제가 가지는 어떤 함축이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격언적 진술에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로 표현될 경우 과거시제를 사용한 문장에서 화자의 당시의 논평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하여 이런 차이로 인해 격언적 진술에 현재시제가 선택되었고 이는 시제론과 무관하지 않으며 현재시제가 가지는 함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인식모형이론은 지금까지의 미해결 문제였던 격언적 진술의 현재시제 사용 합리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11) 시제 표지가 없을 때는 상이 직시 효과를 가진다.

동환, 2011: 927). 하여 중국어에 현재시제 표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문맥, 조동사 ‘了, 过, 在, 着’, 시간부사 등을 통해 번역 시에 현재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시제 중심 언어인 한국어와 상이 시제보다 발달한 중국어의 현재시제가 보여지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두 언어의 현재시제가 모두 ‘참고점이 사건시와 일치하는 시제’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현재시제 표지는 종결형에서 소위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로 불리며 동사와 결합할 때 예시(9)-(12)처럼 자음 뒤에서는 ‘는’, 모음 뒤에서는 ‘ㄴ’으로 나타나지만 형용사나 ‘이’ 뒤에서는 아무런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sup>12)</sup>(김의수, 2018: 241).

(9) 영화는 지금 밥을 먹는다.

(10) 그릇에서 물이 샌다.

(10) 나는 영화가 좋다.

(10) 나는 학생이다.

복문인 경우, 접속문 선행절의 현재시제 표지 역시 영형태이다<sup>13)</sup>.

(13) 철수는 학교로 가지만 나는 회사로 갔다/간다/가겠다.

내포문인 경우, 예시(14)-(16)처럼 관형사형 어미로 불리며 동사 뒤에서는 ‘는’으로, 형용사나 ‘이’ 뒤에서는 ‘ㄴ’으로 실현되며, 이때의 현재시제는 상대시제를 반영한다.

(14) 우유를 배달하는 아저씨가 오늘은 오지 않았다.

(15) 공원에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다.

(16) 영화가 학생인 걸 나는 몰랐다.

이처럼 다양한 현재시제 표지가 존재하기에 다른 언어의 현재시제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그 위치에 따라 대응한 번역이 가능하다<sup>14)</sup>.

하지만 한국어와 반대로 중국어는 고립어로 동사의 활용을 통해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시제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어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한정적 품사 표지의 다발로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경우 영형태로 현재 의미를 나타내거나 ‘正, 在, 正在’ 등과 같은 시간부사, 현재를 가리키는 시간명사, ‘着’와 같은 시간조사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첫째, 동사 앞에 진행상 표지인 ‘正, 在, 正在’ 등과 같은 시간부사를 덧붙여 현재시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17) 我们到家的时候, 小明正在吃饭。(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샤오밍은 밥을 먹고 있었다.)(역사적 현재)

둘째, ‘现在, 此刻, 这时, 那时, 此时’ 등이나 한 시각을 가리키는 시간명사를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순간의 행동이

12) 이를 ‘영형태(zero form)’로 실현되었다고 한다.

13) 여기서의 현재시제 표지는 절대시제가 아니라 상대시제를 반영한다.

14) 현재시제가 있는 언어에서 현재시제가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 유(有)에서 유(有)로의 번역이기에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현재시제가 과거나 미래 상황, 습관, 세계의 내재적 본질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중국어에도 적용되는 지는 뒤에서 논의하겠다.

나 상태를 표시한다.

(18) 现在是几点?(지금이 몇시입니까?)

셋째, 동사 뒤에 시간조사 ‘着’를 추가하여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19) 他哼着歌。(그는 콧노래를 부른다.)

넷째, 자주 발생하는 행동이거나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상태 또는 습관을 표시하는 경우 ‘每+시간단위’, 혹은 ‘常, 常常, 经常, 时常’ 등과 같은 부사를 사용하여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20) 他每天都吃早餐。(그는 매일 아침을 먹는다.)

다섯째, 세계의 내재적 본질, 즉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객관적 존재, 사실, 규칙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시제의 표지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21) 地球绕着太阳转。(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여섯째,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 대부분 격언이나 명언에서는 현재시제의 표지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22) 有志者, 事竟成。(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일곱째, 역사적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현재시제의 표지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23) 他正要过马路, 这时他看见两个年轻人骑着摩托车逃跑了。(그는 길을 건너려다 두 젊은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현재시제로 역사적 현재나 격언적 진술, 현재습관을 나타내지만 가까운 미래나 발생할 예정인 사건-사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지 못한다. 예시(24)는 담화로 B화자의 말은 ‘明天’이라는 시간명사를 생략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현재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표시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주로 의미적으로 시제를 구분하는데 대답에 내일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는 미래시제이지 현재시제가 아니다.

(24) A: 明天你去学校么?(너 내일 학교에 가니?)

B: 我明天去学校。(나 내일 학교에 가.)

#### 4. 한중 현재시제의 인지번역학적 분석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인지언어학적으로 한 언어를 해석하고 있다면 인지번역학은 인지언어학과 번역학을 결합하여 두 언어간의 번역에 대해 논하고 있다. 중국어의 현재시제가 한국어와 달리 비한정적인 표지로 현재시제를 표시하고 있기에 이들을 번역할 때 인식모형이론에 따라 먼저 담화의 시제에 대해 판단하고 그 다음 그에 걸맞는 시제로 번역하여야만 인지번역학의 ‘충실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시제만 논하고 있어 단순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 사건에서 현재시제가 사용되었을 경우 다양한 번역 결과물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이미 한국어와 중국어는 현재시제로 역사적 현재나 격언적 진술을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25) ST: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TT1: 地球绕太阳公转。

TT2: 地球绕着太阳转。

예시 (25)는 세계 내재적 본질로 격언적 진술이다. 이 경우 현재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어는 현재시제 표지가 문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지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ST와 동일한 현재시제를 나타내야 한다. TT1과 TT2는 모두 중국어의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TT1처럼 공표지로 현재시제를 표시하거나 TT2처럼 시간조사 ‘着’를 추가하여 현재시제를 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격언적 진술은 현재습관과 더불어 언제나 유지되고 있는 직접적인 실재이기 때문에 현재시제를 표시하는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진행상 표지인 ‘正, 在, 正在’를 사용하면 안된다.

(26) ST: 영화는 지금 밥을 먹는다.

TT1: 小樱正在吃饭。

TT2: 小樱现在吃着饭呢。

예시(26)은 전형적인 단순현재이다. 단순현재는 인식모형이론의 작은 원인 화자가 마침 고정체와 시간선의 중심에 위치한 순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TT1처럼 진행상 표지인 ‘正, 在, 正在’를 추가하거나 TT2처럼 시간부사인 ‘现在’와 시간조사 ‘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단순현재를 나타낼 수 있다. TT2와 같은 복합적인 사용은 제시된 두 문장 외에도 매우 다양한 번역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27) ST: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

TT: 我明天去学校。

(28) ST: 나는 내일 학교에 가겠다.

TT: 我明天要去学校。

예시(27)은 가까운 미래의 사건-사물을 현재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예시(28)은 추측, 의지 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겠-’을 통해 미래시제임을 나타낸다. 인식모형이론에 따르면 예시(27)은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사물이기에 실재에 속하지만 예시(28)의 ‘-겠-’은 화자가 사건-사물 발생 여부에 대해 미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비실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예시(27)은 미래사건이지만 현재형을 사용하여 현재 경험을 나타내는 반면 예시(28)은 동일한 미래사건

이지만 양태적 의미의 ‘-겠-’을 사용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사건임을 나타내기에 미래시제이다. 이러한 차이를 중국어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시(27)의 TT는 내일이라는 시간부사만을 추가하고 다른 표지들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예시(28)의 TT는 내일이라는 시간부사 외에도 조동사 ‘要’와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의지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는 의미적으로 시제를 정의하므로 흔히 무표지나 시간부사의 도움으로만 시제를 지시하곤 한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예시(27)과 예시(28)의 TT는 내일이라는 시간부사가 존재하여 의미적으로 미래시제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식모형이론에 의하면 예시(27)의 TT는 ST와 동일하게 아무런 양태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기에 꼭 발생하는 사건으로 간주된다. 이와 달리 예시(28)의 TT는 학교에 가는 의지만을 나타내기에 화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다. 때문에 인식모형이론에 따르면 예시(27)의 ST와 TT 모두가 현재시제이고 예시(28)의 ST와 TT 모두가 미래시제를 지시한다.

이로써 중국어는 시간부사에 의해 사건의 시점을 알아낼 수 있지만 이에 근거해 과거시제나 현재시제나 미래시제나를 논의하면 안된다. 마땅히 인식모형이론에 의해 사건-사물이 직접적인지 비직접적인지 실재인지 비실재인지를 판단하고 시제를 논하여야 할 것이다.

## 5. 마무리

현재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연상되는 사건-사물을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데 흔히 단순현재, 역사적 현재, 현재 습관, 세계의 내재적 본질에 대한 격언적 진술, 가까운 미래, 보도문, 해설적 현재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전의 연구들은 현재시제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이들을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Langacker의 인식모형이론은 현재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습관 등 부동한 방면에서의 사용가능성을 인지언어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자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건-사물이고 고정체와의 인식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과거나 미래냐를 막론하고 모두 현재시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한중 현재시제의 표현방식을 고찰하면서 부동한 형식의 현재시제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언어학을 번역에 접목한 인지번역학으로 한중 현재시제의 번역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로써 한국어의 현재습관과 격언적 해설 등과 같이 계속 유지되는 사건-사물일 경우 중국어로 번역할 때 미래 유지 여부가 확실치 않는 진행상 표지인 ‘正, 在, 正在’의 사용을 피해야 함을 알아볼 수 있다. 이어 단순현재인 경우 현시점을 초점으로 삼고 있어 공표지를 제외한 기타 표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번역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중국어 번역이 시간부사에 의해 미래시제로 해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여 시간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차적 표기방법이지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번역 결과물을 통해 시제는 결코 서법과 상과의 상호작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제 표지가 없을 경우 상이 직시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을 중국어의 시제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여 한국어의 현재시제의 유형을 인식모형이론에 근거해 분류하고 그 다음 유지 여부에 따라 중국어의 현재시제로 번역할 때 시간조사 ‘着’를 사용할 것인지 진행상 표지인 ‘正, 在, 正在’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부사를 첨가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인식모형이론으로 현재시제의 다양한 사용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인지번역학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현재시제의 번역에 있어 인지번역학적으로 실제적인 번역장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 다소 아쉽다. 이에 대해 훗날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Dirk Geeraerts & H. Cuyckens(2007),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김동환 역 (2011), *인지언어학 옥스퍼드 핸드북*, 로고스라임: 서울)
- Ewa Dabrowska & Dagmar Divjak(2015),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De Gruyter Mouton. (임지룡·김동환 역 (2018), *인지언어학 핸드북*, 박이정: 서울)
- 김의수(2018), *언어의 다섯 가지 부문 연구*, 한국문화사: 서울.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경기도 파주.
- 임지룡(2014), *문법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경기도 파주.
- 한경숙(2015), *현대중국어 조사 ‘了’, ‘过’ 관련 구조 의미소 중한 대조분석-‘已经’, ‘曾经’과의 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 연구*, 47, 435-455.
- 한경숙(2016), *중국어 부사 ‘正’, ‘正在’, ‘在’ 时相(Tense and Aspect) 자질 중한 대조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53, 365-381.
- 李铁根·方香(2017), *韩国语和汉语现在时的表达特点及翻译方法*, *한중인문학연구*, 54, 253-278.
- 曾茂·韩容洙(2018), *汉语助词“来着”与韩语对应语义研究*, *한중인문학연구*, 58, 195-214.

## 〈토론〉 “한중 현재시제의 인지번역학적 탐구”에 대한 토론문

이석철(중국 길림외국어대학교)

이 연구는 Langacker의 인식적 모형이론을 통해 현재시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인지번역학적 관점에서 한중 현재시제의 번역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지언어학에 번역학을 접목한 인지번역학의 관점에서 한중 현재시제의 번역을 분석하고자 한 점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문을 보면서 일부 아쉬운 점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들머리 부분에서 한경숙을 비롯한 학자들의 선행연구 한계점을 ‘여전히 일대일 머물고 있거나 시제의 다양한 번역 양상을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 논문은 한중 연구시제 연구에 큰 의의가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인지언어학적으로 시제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축적되어왔고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4장 논의를 보면 기존의 대조언어학적으로 한중 현재시제를 고찰한 논문들에 비해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큰 의의가 있다’고 기술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들머리에서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현재시제의 범위가 과거나 미래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범위가 실제 한중, 중한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 그러한 번역 양상을 통해 공통된 법칙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삼고자 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실제 한중, 중한 번역’이라고 범주를 넓히기보다는 발표문의 연구 내용에 맞추어 더 신중하게 기술하였으면 좋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셋째, 2장에서 현재시제는 ‘흔히 단순현재, 역사적 현재, 현재습관, 세계의 내재적 본질에 대한 격언적 진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장의 번역 예문을 보면 ‘역사적 현재’와 ‘현재습관’에 대한 예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문과 분석은 왜 제시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3장에서 ‘중국어에 현재시제 표지가 존재하지 않지만’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중국어의 시제와 상의 존재여부’에 관해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이 중국어에 현재시제 표지가 없다고 단정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2장의 이론과 3장의 한중시제 고찰 부분은 5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는 반면, 4장의 인지번역학적 분석은 불과 1쪽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본 연구의 가장 핵심부분은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독자들은 ‘언어에 대한 인지적 차이로 인해 실제 번역에서는 어떤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기대가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발표자 선생님이 4장의 사례를 실제 번역작품에서 추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사례 (26)의 경우, 제시된 TT처럼 ‘正, 在, 正在’나 ‘着’를 추가하는 방법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는 ‘小张吃饭呢’와 같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사료되는데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참고문헌이 누락되었습니다. 예로 '임지룡 외, 2008: 665', '임지룡 외, 2009: 422', '김동환, 2011: 916' 등 문헌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한 은유 번역의 문제점 고찰

- 정치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

류스원(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중-한 정치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번역 문제를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비문자성(non-literal)을 지닌다. 따라서 은유를 이해할 때 개념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지적 추론이 필요하다. 또한, 은유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관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특정한 문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속한 독자들이 은유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은유의 비문자성과 문화 의존성 등으로 인해 이문화간에 이루어지는 번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기도 쉽다. 이선희(2019)에서는 중국 소설〈三重門〉에서 은유의 사용으로 독자에게 풍자의 효과와 재미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오류나 부족한 번역이 있어 전체적인 즐거움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작가가 고심하여 심어놓은 위트와 풍자는 결국 대폭 감소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오류의 원인으로는 비유나 관용어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부연설명이 부족하여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와 원문의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홍예화(2018)에서는 중국어 관용어의 번역에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과도한 직역으로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표면적 의미 번역에 그쳐 실질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와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의미공백을 보상하지 못해 정보와 문화 함의가 소실되어 독자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우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은유 번역의 문제를 밝힌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소설과 같은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고 정치 텍스트에서 사용된 은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중국어 정치 텍스트에서 사자성어, 속담, 관용어 등을 포함한 은유 표현이 문학 텍스트 못지않게 매우 다양하며 이는 번역의 난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은유가 풍부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역이나 번역투는 전체 번역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 텍스트에서 나타난 은유 번역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번역 품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양국 간 정치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한 정치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은유 번역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진핑 담화와 정치 연설문, 정치 기사문 등 다양한 정치적 텍스트와 번역본을 수집하고 은유 표현을 추출한 다음에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번역을 고찰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은유의 개념

전통적 관점에서의 은유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을 어떤 유사성에 근거하여 결합하는 비유의 표현이며 주로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참신하고 시적인 언어이다. 그러나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은유란 단순히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의 방식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레이코프&존슨(Lakoff & Johnson)이 주창한 ‘개념적 은유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은유는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삶에 널리 퍼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상적 개념 체계는 근본적으로 은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레이코프&존슨, 1980:3). 다시 말해, 인지언어학에서 보는 은유는 더 이상 일탈되거나 시적인 언어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인지능력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우리가 일상언어에 널리 퍼져 있는 관습적 은유에 주목하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은유적 기제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임지룡, 2006:33).

은유가 무엇이며 어떤 표현이 은유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으므로 은유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어 은유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한 박영순(2000)에서 환유, 관용어 등 문자외적 의미로 사용하는 언어형식은 모두 은유로 보고 있다. 관용어는 처음에 임시적 은유로 생성되었다가 공간적으로 전파력을 가지고 시간상으로 지속성을 가지게 되어 결국은 의미가 굳어진 관용어가 된 것이다. 관용어와 은유는 모두 문자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은유는 하나의 단어로도 가능한 반면 관용어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구 이상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은유는 형식의 변화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관용어는 형식의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다(박영순, 2000:77). 여기서 관용어는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서 일정시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통용되고 의미가 굳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의 속어(熟語:idiomatic phrase)와 대응될 수 있는 개념이다. 속어는 정형화된 사조(詞組)나 구(句子)로 사자성어, 속담, 혈후어, 격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각 단어 의미로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나 특정 사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공유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알고 있는 표현이다. 은유의 본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에서 은유에 대한 인식도 단순히 수사학 측면에서 벗어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일부 성어와 속담, 혈후어 등 속어 표현, 시가 등을 모두 확장된 은유라고 보고 있다(수딩팡(束定芳), 2000:37).

본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은유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사용에 있어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표현을 모두 은유 표현으로 보기로 한다. 즉, 성어, 속담, 혈후어 등을 포함한 속어(관용어) 표현, 해당 맥락 속에 문자외적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 구, 문장 등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2. 적합성 이론 및 은유 번역

최근 번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독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행위로 전환하면서 적합성 이론을 통해 은유 번역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스페이버와 윌슨(Sperber & Wilson, 1995)에 의해 주창한 의사소통 이론으로 화, 청자가 어떻게 서로 가지고 있는 맥락적 가정(communicative assumption)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유추해 내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이창수, 2000:65). 이 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적합성’은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추론하는데 들어

가는 정보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얻게 되는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의 상관관계에서 정의된다. 즉, 노력이 적게 들수록, 맥락 효과가 클수록 발화가 청자에게 더 높은 적합성을 가지게 된다. 최적의 적합성(optimal relevance)은 청자가 최소의 노력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맥락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적합성 이론은 은유 번역의 기준과 방법 선택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은유를 얼마나 충실하고 정확하게 번역했는지보다 번역문 독자에게 적절한 맥락 효과를 전달했는지의 관점에서 은유 번역을 바라봐야 한다. 맥락 효과의 달성은 해당 독자가 갖고 있는 맥락적 가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번역자가 그런 맥락 가정의 차이를 고려해서 표현방식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은유 번역은 단순히 의미 전달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 은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문 독자가 필요로 하는 노력과 번역문 독자가 필요로 하는 노력 면에서도 비슷해야 적합성의 등가가 성립된다. 이는 번역에서 은유가 지닌 다양한 효과와 기능의 보존을 요구하는 것이다.

적합성 이론을 바탕으로 은유 번역을 연구한 이창수(2000)에서는 문학작품에서의 은유 번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적합성 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유 번역 시 간과되기 쉬운 다양한 요소들을 적합성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고 문학작품에서 저자가 은유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은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지 보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순영(2005)에서는 문화와 맥락 의존도가 높은 은유 표현의 번역을 중심으로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은유 번역 중 풀어쓰기 방법이 가져온 맥락 효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풀어쓰기 방법은 SL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함축의미가 TL에서는 상실되며, 이로 인해 SL과 TL 텍스트 수용자들에게 주어지는 맥락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장혜선(2018)에서는 적합성 이론의 틀에서 중-한 은유 번역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은유를 같은 은유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은유를 도착어의 다른 은유로 번역하는 것이 차선택이 될 수 있고 비은유적인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은 은유가 갖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 3.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정치 텍스트에서 나타난 은유의 번역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치 텍스트는 정치라는 주제에 관한 공적 의사소통이며, 정치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패턴으로서 정치적 맥락 및 정치적 행위자들과 관련된 텍스트를 말한다. 분석 텍스트의 선정 기준은 첫째, 현대 상황에 맞는 최근의 정치적 텍스트이다. 둘째, 번역 품질이 비교적 높은 텍스트이다. 셋째, 다양한 은유 표현을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넷째, 서로 다른 번역가에 의해 번역된 텍스트이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선정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1〉 분석 텍스트 정보

분석 텍스트	주요 내용	번역 초점	출처
시진핑 담화 45편	일반연설, 공문연설	원문 중심	〈习近平谈治国理政〉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한다〉
정치 연설문 23편	일반연설	독자 중심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5〉 〈중국 명연설문 베스트 30〉
정치 기사문 30편	외교회담, 정치 브리핑	독자 중심	人民网 인민망 한국어판

우선, <习近平谈治国理政>는 중국의 발전 이념, 대내외 정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한 연설, 발언, 문답 등을 포함한 총 79편의 정치적 담화가 들어 있다. 그중에 연설문은 일반적인 개회사, 축사 또는 국제회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공문 형식의 연설문<sup>1)</sup>도 많이 포함되었다. ‘시진핑식 언어’는 순박하고 통속적이며 친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속담과 고사성어를 자주 인용하고 비유를 잘 사용하는 등 언어적 특성을 가진다(자이리, 2015:229). 따라서 다양한 은유 번역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중의 45편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다음에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5>와 <중국 명연설문 베스트 30>은 모두 중국어 고급 학습자나 통역번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출판한 독해 텍스트이다. 본 연구 목적에 따라 그중에 정치와 관련된 연설문 각각 11편과 12편을 발췌해 총 23편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은유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설문 이외에 정치 관련 기사문도 30편을 발췌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문은 인민망 한국어판에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은 정치 분야의 기사문이며 외교회담, 정치 브리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선정된 텍스트의 번역자는 통역번역을 전공하는 전문 번역가도 있고 일반 번역가도 있으며 한국인 번역가와 중, 한 공동 번역가가 있는 등 서로 다른 언어 배경을 갖고 있다. 텍스트 전체적 번역 초점도 발주자 요구나 번역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우선, <习近平谈治国理政>는 중국 외문국과 외문출판사가 주도하여 출판한 것으로 중국의 사상과 이념을 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이와 같은 번역은 ‘대외 선전 번역’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번역의 초점은 가독성보다 원문 내용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5>와 <중국 명연설문 베스트 30>은 학습자 이해에 돕기 위해서 번역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가독성과 이해 용이성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인민망 기사문은 물론 정보 전달의 정확성도 중요시하지만 한국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중한 은유의 번역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텍스트에서 은유를 추출하여 병렬코퍼스로 만들었다. 은유 추출에 관해 본 연구는 은유 인식 절차(MIP, 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를 참고하여 은유를 식별하였다. MIP에 따르면 해당 표현의 문맥 의미와 기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은유를 식별하는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문맥 의미는 텍스트 전후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기본 의미<sup>2)</sup>는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유의 판별은 문맥 의미와 기본 의미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문맥 의미와 기본 의미가 다르지만 추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표현은 은유적 표현으로 판정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총 958개의 은유 표현을 추출하였다.

그다음에 추출한 은유 번역 자료를 바탕으로 그중에 나타난 은유 번역의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고 대안 번역을 제시하였다. 적합성 이론에 따르면 번역은 의사소통 행위로서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적합성을 달성했는지는 ‘맥락 효과’와 ‘정보 처리 노력’의 관계 속에서 판단되는데 독자가 적은 처리 노력으로 충분한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이 된다. 반면에, 번역에서 원문이 의도한 맥락 효과를 번역문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번역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번역문 독자가 원문 독자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노력을 들여야 할 경우에도 적합성이 떨어져서 바람직한 번역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문과 번역문 간에 적합성 등가를 이루지 못한 경우를 모두 번역 문제로 보기로 한다. 다음 4장에서 이에 관한 문제를 찾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번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공문 형식의 연설문은 국가 지도자가 각종 회의에서 발표하는 업무 보고 등을 말한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문보다 공문 연설문은 대부분 당원이나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발표하는 교시적인 성격을 지닌다(김선경, 2015:12).

2) 본 연구에서 사전에서 실린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기본 의미로 규정하기로 한다.

## 4. 은유 번역의 문제점 분석

### 4.1. 포자미 현상

‘포자미(faux amis)<sup>3)</sup>’란 어원이 같은 언어 사이에 기의가 다르거나 활용상 용법이 달라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표의 유사성 등 형태적인 유사성 때문에 두 언어를 모두 알고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상 오류를 범하게 하는 존재들을 일컫는다(김혜림, 2008:250). 이는 번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특히 한자를 공유하는 중-한 번역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이다. 중-한에서 사용하는 동형한자어는 초기언어학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언어 간섭이 중-한 통번역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김혜림, 2001:89). 은유의 번역에서도 지나치게 형태에 얽매어 문자적으로 직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결과로는 도착어 독자가 은유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지 못해 원문 독자와 같은 맥락적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장혜선(2018:275)에서도 중-한 번역에서는 한자어나 성어의 어휘 자체가 한국어 텍스트에서도 통용되는 경우, 그 함축적 의미와 통사적 화용적 활용 정보를 간과한 채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번역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이 문제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T: 中国改革经过30多年,已进入深水区.

TT: 중국의 개혁은 30여 년의 실천을 거쳐 이미 심수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TT': 중국의 개혁은 30여 년의 실천을 거쳐 가장 힘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ST에서 ‘深水区(심수 구역)’은 ‘가장 힘든 단계’라는 은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TT에서 같은 한자 어휘로 번역했으나 비슷한 은유적 의미가 내포되지 않아 원문과 같은 맥락 효과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비슷한 맥락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심수 구역’의 은유적 의미를 직접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ST: 那些出于政治目的, 编造各种借口, 在世界上任意拘禁他国公民的做法, 是彻头彻尾的胁迫霸凌, 是对国际规则和人类良知的公然挑战, 在21世纪的今天, 再不应任其横行下去了。

TT: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각종 핑계를 날조하고, 다른 나라 국민을 임의로 구금하는 방법은 철두철미한 협박이자 패륜이며 국제 규칙과 인류의 양심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오늘날 더 이상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TT':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각종 핑계를 날조하고, 다른 나라 국민을 임의로 구금하는 방법은 완전한 협박이자 폭력이며 국제 규칙과 인류의 양심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오늘날 더 이상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예문2의 경우는 중-한 통용되는 사자성어 ‘철두철미(彻头彻尾)’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의미상으로 비슷하나 두 가지 표현이 가진 활용상의 용법으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그대로 직역하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즉, TT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준비’ 등 표현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철두철미한 협박/폭력’ 등은 TT에서 수용성이 낮은 표현방식이다. 이를 대신 TT 독자의 사용 관습에 맞게 ‘완전한 협박이자 폭력’으로 바꾸면 더 자연스럽게 적합성이 높은 번역을 도

3) ‘포자미(faux amis)’는 영어에서 ‘가짜 친구(false friends)’라고도 부른다. 프랑스 언어학자 막심 코슬러(Maxime Koessler)와 쥘 데로퀴니(Jules Derocquigny)가 1928년에 처음으로 ‘가짜 친구(faux amis du traducteur)’라는 개념을 제시했기에 프랑스어가 더 널리 알려졌다.



출할 수 있다.

(3) ST: 10+3国家山水相连, 命运与共。

TT: 10+3 국가는 산과 물이 이어져 있고 운명을 함께 한다.

TT': '아세안+3' 국가는 산과 물이 이어져 있고 운명을 함께 한다.

예문3의 경우는 은유성을 가진 숫자의 번역 문제이다. 아라비아 숫자는 어느 문화든 공유하는 것이지만 숫자에 내포된 의미는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숫자도 각 문화권에서 그 고유한 함축적 의미가 있으며 그 문화권 구성원의 인지체계에 만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386'은 나이가 30대이고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6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996'은 9시에 출근해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출근하는 회사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이런 표현방식이 없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도착어 문화권의 표현관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 예문에서 '10+3'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국제회의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TT에서 '아세안+3'로 바뀌어야 한다.

## 4.2. 문화 정보의 오독<sup>4)</sup>

은유 번역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대로 직역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번역문 독자를 고려하는 자국화<sup>5)</sup>가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은유를 도착어 문화에 익숙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는 독자의 이해용이성을 높이고 정보 처리 노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착어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려면 은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4) ST: 摸着石头过河,是富有中国特色、符合中国国情的改革方法。

TT: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것은 중국 특색을 잘 나타내고 중국 실정에도 부합되는 개혁 방법입니다.

TT': '돌을 더듬으면서 강을 건넌다'는 것(미지의 길 탐색)은 중국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중국 실정에도 부합되는 개혁 방법입니다.

위 예문은 중국어 관용어 '摸着石头过河(돌을 더듬으면서 강을 건넌다)'가 TT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다'로 대체한 경우이다. 얼핏 보면 독자의 처리 노력을 줄이고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문의 의도를 번역문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摸着石头过河'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덩샤오핑이 제시한 말로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으니 돌을 만지면서 건너야 한다'라는 것이다. 즉 아주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다'는 관용어는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두 개 표현에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서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직역하거나 '미지의 길을 탐색하는 것'으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원문의 도에 충실하면서도 의미 이해에 돕는 방법일 것이다.

4) 오독은 이역 문화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가리킨다.

5) 자국화란 번역텍스트를 번역 독자에게 가깝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번역문 중의 외래성(foreignness)을 최소화하는 것이다(정호정, 2008:176).

(5) ST: 我国社会主义制度能够集中力量办大事是我们成就事业的重要**法宝**。

TT: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역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을 성사할 수 있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TT':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역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을 성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예문5는 ‘法宝(법보)’에 담는 은유적 의미를 단순히 ‘소중함’으로 오독하여 ‘보배’로 번역한 경우이다. ‘법보’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불교의 진리를 적은 불경, 중이 사용하는 의발(衣鉢)과 석장(錫杖) 등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신화에서 요귀를 제압하거나 죽일 수 있는 보물도 ‘법보’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일상언어에서 ‘법보’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나 방법, 경험 등을 표현하는 은유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배’는 ‘법보’의 은유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부족하여 적합성이 떨어진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문맥을 고려해 ‘비결’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4.3. 은유적 의미의 명시화

은유로 단순히 의미 전달만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욱 강조하거나 발화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은유를 사용한다. 그러나 번역에서 은유를 의미 중심으로 번역해 그 효과가 약해지거나 상실될 때가 많다. 이런 경우에 대해 뉴마크(1988:109)에서는 은유에 함축된 의미만 살려서 번역할 경우 은유의 정서적이고 활용적인 효과가 상실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창수(2000)에서는 원문의 은유를 비은유적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은 은유의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독자들의 권리를 앗아가며 번역자 자신의 해석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은유가 지닌 풍부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순영(2005:99)에서는 의미 중심의 번역은 은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함축의미가 TL에서 상실되며 이로 인해 SL과 TL 텍스트 수용자들에게 주어지는 맥락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번역에서 적합성의 등가를 이루기 위해 은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효과의 보존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6) ST: 改革开放以来,我国农村面貌发生了**翻天覆地的**变化。

TT: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모습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TT':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모습은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위 예문 중 ST에서는 ‘翻天覆地(하늘과 땅이 뒤집히다)’라는 사자성어로 중국 농촌의 변화를 생생하게 묘사했지만 TT에서 ‘큰 변화’로 번역한 것은 원문 은유보다 표현력이나 효과의 강도 측면에서 다소 떨어져서 TT 독자에게 같은 맥락 효과를 전달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적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되도록 TT에서도 비슷한 의미와 효과를 가진 은유적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TT에서 자연계에서나 사회에서 큰 변혁이 일어남을 의미하는 ‘천지개벽’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7) ST: 为青年驰骋思想**打开更浩瀚的天空**, 为青年实践创新搭建更广阔的舞台, 为青年塑造人生提供更丰富的机会

TT: 그들에게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실천과 혁신을 할 수 있는 더 큰 무대를 마련해

주며, 그들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TT: 그들이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고, 실천과 혁신을 할 수 있게 더 큰 무대를 마련해 주며, 그들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예문7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문에서는 청년들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와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을 ‘打开更浩瀚的天空(더 넓은 하늘을 열어주다)’라는 은유 표현을 통해 나타냈고 번역문에서는 도착어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의미를 직접 풀어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번역 방법은 독자의 정보 처리 노력을 줄일 수 있지만 맥락 효과에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원문보다 번역문의 표현력이 떨어진 데다가 형식이 비슷한 세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진 나열문<sup>6)</sup>에서 ‘기회를 많이 제공하다’는 말이 두 번 나타난 것은 독자에게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 있고 문장의 형식성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풀어쓰기 전략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 해당 은유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은유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 은유적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다’라는 은유로 바꾸는 것은 비교적 적합성이 높은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8) ST: 有的要求超规格接待, 住高档酒店, 吃山珍海味, 喝美酒佳酿, 觥筹交错之后还要“意思意思”。

TT: 어떤 사람은 규정을 초과한 접대를 요구하고 고급 호텔에 묵으며 산해진미와 고급 술을 요구합니다. 떠들썩한 술자리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선물과 뇌물을 요구합니다.

TT: 어떤 사람은 규정을 초과한 접대를 요구하고 고급 호텔에 묵으며 산해진미와 고급 술을 요구합니다. 떠들썩한 술자리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성의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예문8 중 ST에서 나타난 ‘意思意思(의사의사)’는 중국어에서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물’이나 ‘뒷돈’ 등 의미로 사용해 부정부패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을 원문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며 은유적으로 전달하였는데 번역문에서 그것을 ‘선물과 뇌물’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비록 의미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설적 언급이 피하려는 저자의 의도와 은유적 효과가 상실되어 적합성 높은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은유와 같이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의 번역을 단순히 의미 전달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고 은유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와 기능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함축성이 강한 은유의 경우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풀어서 번역하는 것은 원문 은유가 지니는 풍부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풀어쓰기보다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성의 표시’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 4.4. 한자병기의 사용

은유 번역에서의 한자병기는 은유를 직역하고 그 뒤에 한자를 같이 표기하여 설명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자병기는 동음이의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1962년에 ‘한글전용’ 즉, 한국어를 적을 때 한자와 다른 외국 문자를 혼용하지 않고 오직 한글만 쓰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후부터 한자의 사용이 대폭 줄었고 대중들의 한자 인지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한자병기로 한국독자가 그 표현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 은유 뒤에 한자병

6) 나열문은 중국 정치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으로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보다 오히려 독자의 정보 처리 노력을 증가시켜 이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중한 모두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만 한자에 대한 한국 독자의 수용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외국어 학습을 위한 번역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번역에서 한자병기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9) ST: 广大台湾同胞都是我们的骨肉天亲

TT: 타이완 동포들은 모두 우리와 골육(骨肉)을 나눈 친족입니다.

TT': 타이완 동포들은 모두 우리와 골육을 나눈 친족입니다.

(10) ST: 我们应该推动不同文明相互尊重、和谐共处,让文明交流互鉴成为增进各国人民友谊的桥梁、推动人类社会进步的动力、维护世界和平的纽带。

TT: 우리는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상호 존중과 평화적 공존을 추진하며 문명의 교류와 상호 참조가 각국 국민의 우의를 증진하는 교량으로, 인류 사회의 진보를 추하는 원동력으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유대(紐帶, 끈과 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TT': 우리는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상호 존중과 평화적 공존을 추진하며 문명의 교류와 상호 참조가 각국 국민의 우의를 증진하는 교량으로, 인류 사회의 진보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연결 고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11) ST: 展望未来,我国青年一代必将大有可为,也必将大有作为。这是“长江后浪推前浪”的历史规律,也是“一代更比一代强”的青春责任。

TT: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의 청년 세대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또 반드시 큰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고 나아간다(长江后浪推前浪)'는 역사적 법칙이며, 앞 세대보다 나은 성장을 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TT':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의 청년 세대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또 반드시 큰일을 해낼 것입니다. 양쯔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 듯 세대교체가 세상의 이치이며, 앞 세대보다 나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상 예문에 나온 한자병기는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모두 '불필요한 정보 처리 노력'에 해당한다. 예문(9)의 경우는 한자로 설명해주시 않아도 독자가 맥락을 통해 은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10)의 '유대'라는 것은 문화 특색이 강하거나 창조적인 은유가 아니므로 그대로 유지해서 설명 추가하기보다는 도착어에서 수용성이 높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문(11)의 경우는 문화 보급의 목적으로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지만 독자에게 가독성을 떨어트리고 피로감을 가져오는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

## 5. 결론

중국어 정치적 텍스트에 다양한 은유를 통해 정보를 간접하면서도 표현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서 오역이나 부적절한 번역으로 인해 원문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적합성 이론을 토대로 중한 정치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번역의 문제점을 포자미 현상, 문화 정보의 오독, 은유적 의미의 명시화, 한자병기의 사용 등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적합성 이론의 관점은 하나의 척도로서 은유 번역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번역에서 원문이 은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TT 독자의 인지체계에서 최적의 적합성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며 적절한 번역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선경(2015), 「중국 국제 정치 연설문의 텍스트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순영(2005), 「은유표현의 풀어서 번역하기(paraphrase) 방식이 SL과 TL의 맥락효과에 미치는 영향 -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영어영문학 연구』 47(3): 87-101.
- 김혜림(2001), 「中·韓 통번역에서 발견되는 한자어로 인한 언어간섭」, 『통역과 번역』 3, 87-103.
- 김혜림(2008), 「한국어와 중국어간 同源記標素와 포자미」, 『중어중문학』 42: 247-270.
- 박영순(2000), 『한국어 은유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유선영(2015), 「관용어로서의 속담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신영어영문학』 61, 225-246.
- 이선희(2019), 「중국 소설 《三重门》 속 비유와 관용표현의 한국어 번역 오류 분석」, 『동아인문학』 49, 173-215.
- 이창수(2000), 「문학작품에서의 비유적 표현의 번역 - Relevance Theory의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2: 57-83.
- 임지룡(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29-60.
- 자이리(2015), 「习式语言」研究, 중국학논총, 0(48), 211-229.
- 장혜선(2018), 「중한 번역에서의 은유표현 연구-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어문학논집』 109: 225-277.
- 정호정(2008),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홍예화(2018), 「중국어 관용어의 조선어번역 책략 및 교수방안」, 『중국조선어문』(6), 60-68.
- 束定芳(2000), 隐喻学研究,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Dagut, M.(1976), *Can 'metaphor' be translated?*, Babel 22(1), 21-33.
- Gutt, E.A.(201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wmark, P.(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 Sperber, D. & Wilson, D.(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토론〉 “중-한 은유 번역의 문제점 고찰 -정치적 텍스트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인선(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류스원선생님의 논문원고 잘 읽었습니다. 실무번역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관심 있는 주제이지만 관련 지식이 미천한 관계로 토론이라고 하기 보다는 배움을 청하고자 먼저 이해한바를 간단히 정리하고 몇 가지 질문을 중간중간에 곁들이고자 합니다.

1. 류선생님은 중국어 정치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번역문제를 적합성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적합성 이론이란 의사소통 이론으로 화, 청자가 어떻게 서로 가지고 있는 맥락적 가정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유추해내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적합성은 청자가 최소의 노력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맥락 효과를 얻는 것이다(2.2)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합성 이론의 최종 목적은 최적의 적합성(Optimal Relevance)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에 적용하면 번역문 독자의 인지, 문화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독자의 정보처리 노력을 줄이고 높은 맥락효과를 제공하는 번역문이 최적의 적합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최적의 적합성 달성을 위해 번역자는 최대한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전략이 다양할 텐데, 그중 의미번역은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은유 번역에서는 은유의 특성상 은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문 독자가 필요로 하는 노력과 번역문 독자가 필요로 하는 노력면에서도 비슷해야 적합성의 등가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은유를 번역할때는 독자의 정보처리노력을 줄이고자 단순히 의미 전달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고 은유가 지닌 다양한 효과와 기능의 보존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은유를 같은 은유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은유를 도착어의 다른 은유로 번역하는 것이 차선택이 될 수 있고 비은유적인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은 은유가 갖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인 958개 은유표현이 번역문에서 동일한 은유 또는 다른 은유로 번역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비은유적인 표현으로 번역된 경우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2. 이 글에서는 총 3종류의 정치텍스트를 선정했으며 이들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표현 총958개를 추출하여 분석했는데, 논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3종류의 텍스트 선정이유를 본문 3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3종류의 텍스트의 출판 주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习近平谈治国理政》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번역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국 외문국과 외문출판사가 주도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의 초점이 가독성보다 원문에 내용에 대한 충실성에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자의 의도이기 보다 출판사측의 요구사항이기에 번역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적의

적합성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종류 텍스트의 은유에 대한 번역오류에 대한 비교를 하셨다면 혹시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요?

3. 번역의 문제점을 포자미 현상, 문화 정보의 오독, 은유적 의미의 명시화, 한자병기의 사용 등과 같은 4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이번 논문의 분석대상인 3종류의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4가지 양상만 발견되었나요? 아니면 후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계신지요?

4. 마지막으로 각 예문의 출처를 밝혀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